

# 생활-전문체육 갈등 봉합하고 재정·복지증진 해법 찾아야

## 이상동 신임 광주체육회장 과제는

이상동(58) 광주시복지체육회장이 전임 회장 중도 사임으로 선장을 잃은 광주시체육회의 새 수장이 됐다.

이 회장은 흐트러진 체육회 조직을 추스르고 오는 2023년 2월까지 2년 여 임기 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재정 악화와 복지 정책 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체육회장 출마의 변에서 “ 그동안 정치 지향의 출신들이 회장을 맡다보니 체육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 악화와 복지 정책 부재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공약사항에 녹아 있다. 광주시 전 체육인을 위해 3억원 보장 보험 제공, 체육인

## 선거 과정 적대적 진영 논리 털고 탕평인사·균형발전 추진해야 이 회장 행사재판 계류 큰 부담...결과 따라 리더십 영향 우려도

권리 침해 사건 변호사비 전액 무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기업과 연계해 팀을 창단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는 “경험과 중앙 인맥을 적극 활용해 체육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시켜 체육회의 전체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두 차례 선거과정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계의 골이 깊게 패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 임 회장은 물론 이 회장은 사실상 생활 체육계의 지

지로 당선됐다. 전임 김창준 회장은 선거인단 310표 중 147표(득표율 47%)를 획득했고, 이 회장도 선거인단 274표 중 132표(득표율 48%)를 얻었다.

득표수가 보여주듯 김 회장을 지지했던 생활체육계의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 회장에게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양 진영이 치열하게 각축하면서 적대적 진영 논리가 확산했다는 데 있다. 두 차례 선거는 이를 강화하고 악화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게 체육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결국, 이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체육계의 화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두루 아우르는 탕평인사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체육회에 두고 두고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이 회장이 체육계의 화합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리더십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물론 광주시체육회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클럽 붕괴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광주서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고다. 이 회장은 해당 사건

과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회는 최종 선고 형량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 등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판은 그의 리더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지만 광주 체육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결과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집이 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당장 이 회장은 오는 25일 체육회장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야 한다.

광주 북구 체육회장에서 광주체육계의 수장이 된 이상동 회장이 산적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체육계의 비전을 실현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연고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선수 5명 특별지명

이현·최민지·지민경·이한비·최가은  
기량 꽃피우지 못한 유망주 위주 선발

광주 연고 여자 프로배구 신생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기존 6개 구단에서 1명씩 뽑은 특별 선수 지명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센터 이현(20-GS칼텍스), 센터 최민지(21-한국도로공사), 레프트 지민경(23-KGC인삼공사), 레프트 이한비(25-흥국생명), 센터 최가은(20-IBK기업은행) 등 5명을 선발했다.

현대건설에서 뽑은 선수는 없다. 페퍼저축은행은 5개 구단에 지명 선수의 2020-2021시즌 연봉을 보상금으로 준다.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의 신생팀 지원 합의에 따라 여자부 6개 구단은 구단별 보호선수 9명의 명단을 10일 페퍼저축은행에 전달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보호선수를 제외하고 구단별로 선수 1명씩을 특별 지명 형식으로 영입했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예대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 1순위에 뽑혔지만, 아직 기량을 꽃피우지 못한 유망주들을 식구로 선발했다.

2라운드 4순위로 뽑힌 이현을 빼고 4명은 모두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이다.

2015-2016시즌 입단한 이한비가 가장 많은 시즌을 뛰었고, 1라운드 2순위로 입단한 지민경도 5



이현 최민지 지민경 이한비 최가은

시즌 동안 인삼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선발한 헝가리 출신 열리자벳 이네바르가(22)를 합쳐 식구를 6명으로 늘렸다.

김형실 감독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홍보 극대화를 위해 신신하게 출발하고자 젊고 장래성 있는 선수들을 선발했다”며 “해당 선수들의 중·고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정보도 얻고, 부상 여부 확인해 심사숙고 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정도에 선수들이 함께 모여 웨이트트레이닝과 기본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퍼저축은행은 앞으로 실업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미계약 프로 선수들, 9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 6명 등을 합쳐 13~14명 정도로 창단 선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페퍼저축은행은 경기도 용인 '드림파크'에 훈련 시설을 마련했다. 또 13일엔 광주시와 연고지 유치 협약식도 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1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황선우(서울체고)가 기록을 확인한 뒤 주먹을 쥐고 있다. 황선우는 이날 48초04의 한국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황선우 있기에...한국수영 꿈 커진다

자유형 100m 48초25로 한국신기록...올림픽 결승 진출 기대

고교생 황선우(18·서울체고)의 연이은 역영에 한국 수영의 꿈도 커지고 있다.

황선우는 지난 15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1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04의 한국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황선우는 지난해 11월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박태환이 가지고 있던 종전 한국기록을 48초25로 새로 썼다. 그리고는 6개월 만에 기록을 다시 0.21초 단축했다.

이미 도쿄올림픽 A기준기록(48초57)을 통과했던 황선우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생애 첫 올림픽 출전까지 확정 지었다.

황선우는 이제 더 큰 꿈을 꾀다.

한국 수영 선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바로 자유형 100m 올림픽 결승 진출이다.

황선우가 도전하는 자유형 100m 결승 진출은 박태환도 못 한 일이다.

주 종목이 자유형 200m와 400m인 박태환은 스피드 훈련의 일환으로 자유형 100m에도 종종 대회에 출전해 아시안게임에서는 2006년 도하 대회 은메달, 2010년 광저우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출전한 2016년 리우 대회에 처음 출전해 예선에서 탈락했다.

남자 자유형 100m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 경쟁이 치열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호락호락한 종목이 아니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시상대에 선 아시아 선수는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낭제타오(중국)가 유일하다.

올림픽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금메달을 포함해 몇 차례 메달을 수확했지만 1956년 호주 멜버른 대회부터는 단 한 명의 아시아 선수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황선우의 현재 기록이라면 당장 도쿄에서 메달은 어렵더라도 결승 진출은 충분히 기대할만하다.

황선우가 작성한 48초04로는 리우 올림픽에서 결승 7위를 차지할 수 있다. 준결승에서 8위로 결승에 턱걸이한 선수의 기록은 48초23이었다.

아직 미국, 호주 등 수영 강국들의 대표선발전이 치러지지 않았지만 황선우의 기록은 올해 FINA 세계랭킹 공동 7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2018년 동아대회에서 51초32를 찍었던 황선우는 레이스를 할 때마다 기록을 줄여 3년 만에 3초 넘게 단축하는 괴력을 보여줬다. 지금의 페이스라면 47초대 진입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많다.

황선우가 있어 한국 수영 첫 자유형 100m 올림픽 결승 진출 꿈도 영글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 영국 BBC가 분석한 '도쿄올림픽 취소 어려운 이유' 세가지

- ① 조직위 막대한 손실
- ② 중국과 라이벌 구도
- ③ 일본 부흥 상징적 행사

영국 BBC가 '왜 일본은 올림픽 대회를 취소하지 않겠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도 7월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이 기사에서 BBC는 “올림픽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대회를 취소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다.

BBC는 “우선 올림픽을 취소할 권한은 개최 도시가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있다”며 “다

만 개최 도시와 계약서에 따르면 전정이나 시한 소요 사태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IOC가 참가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한다”고 보도했다.

또 올림픽 현장에도 ‘선수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기를 진행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미겔 국제 스포츠 변호사는 BBC와 인터뷰에서 “결국 IOC가 대회 취소를 결정해야 하지만 계약서나 올림픽 현장의 내용에도 IOC는 대회를 강행하려고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이 참가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IOC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잭 앤더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그렇다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대회 조직위원회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BC는 “결국 현실적으로 IOC와 일본이 공동

으로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 경우 막대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을 통한 배상은 올림픽 관련 직접 투자 항목에는 적용이 되지않는 간접 투자에서 나오는 손실은 메우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또 급전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당장 2022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변수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 라이벌’인 만큼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잘 치러내고 싶어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오랜 경기 침체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이겨낸 ‘일본 부흥’의 상징적인 행사로 삼으려 한다는 점도 취소를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결국 BBC는 “역풍이 거세지고 있지만 IOC가 대회 취소를 고려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7월 23일 올림픽이 어떤 형태로든 개막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크루즈 패밀리  
누에이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2관 아들의 이름으로, 랑 더 라스트 챔퍼
-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명량정 코난 비색의 탄환, 아들의 이름으로 랑 더 라스트 챔퍼,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 4관 더 스파이
- 5관 스파이럴 비커밍 아스트리드, 키피스
- 6관 스파이럴
- 9관 아들의 이름으로,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슈퍼노바, 랑 더 라스트 챔퍼
- 7관 씨네카를 내일의 기억, 어른들은 몰라요
- 8관 씨네카를 크루즈 패밀리: 누에이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극장판 공순이 장난감나라 대모험 명량정 코난 비색의 탄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2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 2021.05.28.(금)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4

GAC 기획공연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 2021.06.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